

♪ Ye's 가족 이야기 ♪



〈집 주변 물소들의 모습〉

물이 마른 땅에는 새 풀이 자라났고 소들은 그 곳에서 자란 풀들을 먹으며 나른한 오후를 보냅니다. 여름과 또 여름뿐인 것 같은 이 땅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곧 있을 더위와의 씨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와 또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매일이지만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구체화하며 사역으로 한 발 내디디며 더 치열해질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4:12, 새번역]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신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캄보디아 이슈



〈범죄 장소로 사용된 원O단지 모습〉

이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이 유입한 마약과 범죄에 대한 걱정을 현지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보도했던 세 곳의 단지 중 한 곳이 저희가 사는 곳과 만나는 큰 길 맞은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방들이 붙어있는 것 같은 이 단지는 그저 현지인들의 쪽방으로만 알았습니다. 방송 이후 이

예수 그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함께 있길 기도합니다. 지금 C국은 매일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건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오후가 되면 내리던 비는 어느 날인가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매해 겪는 일이지만 물축제를 끝으로 시작되는 건기와 함께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이 시기는 참 신기하면서도 주님의 섭리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서 정말 놀랍습니다. 물웅덩이를 만들었던 우기의 빗

한국방송 **KBS**는 얼마 전 C국의 범죄단지에 대해 연일 집중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의 내용은 해외취업사기(사기, 폭행, 감금)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분들께서 안부를 물어봐주셨고 저희는 현지의 상황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C국에서 살면서 이 나라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지하는지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

단지는 저녁에 불 켜는 것마저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받아 드린 중국은 분명 C국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만큼 큰 어두움도 함께 공존하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C국의 언론은 C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KBS에 정정방송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드러난 썩은 것을 잘라내야할 이 때에 또 다시 감추고 포장하기 급급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2024년 사역 보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손선교사>

1. **교회 개척을 위한 땅밟기와 사역지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C국에는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은 저희 가정에게 가장 잘 하는 것을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 가장 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저희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 분야의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는 C국의 젊은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지 교회들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2. **C국 청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역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에게 청년들을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C국 청년들과 소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주제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청년들과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미 문화(영상,미디어 사역쪽에 일하는 여호오아 형제와는 교회가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청년들을 위해 해야할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C국은 현재 빠른 속도로 문화가 발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에 걸음을 맞출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인 제자 Mo Shi와 함께>

3.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C국에서 저희 부부는 이 땅의 청년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 넓게 분포된 청년세대는 분명 동남아의 새로운 크리스찬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놀랍게도 중국인의 가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진 속 모시라는 이 학생은 지금 이선교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꽤 먼 거리에서 그의 부모님과 함께 바이올린을 배우러 오게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오는 날은 모시의 아버지와 저(손)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시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십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시고 계시는데 저희 가정은

모시 가정이 모두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교제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음악 경연대회에서 모시는 처음으로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연주했고 그의 어머니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저희 또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4. 이번 학기부터 이선교사는 캄보디아 음악기관 S. F. art 스쿨에서 바이올린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C국은 공교육 안에 음악교육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처럼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학교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음악을 전공한 부부에게 작은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음악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중입니다.

+ 2025년 사역계획

2019년 여름 저희 가정은 선교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의 이 시작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역을 다짐해 주셨던 많은 분들은 C국이 선교지로 결정 났을 때 함께 C국을 품어 주셨고, 2020년 파송식 후에도 코로나로 한국에서 대기기간을 보내야 했을 때 많은분들이 저희와 함께 대기기간을 기도로 보내주셨습니다. 마침내 2021년 C국의 땅을 밟고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기도 무릎으로 함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본격적인 사역의 구체화를 실행할 해입니다. C국에서 선교사의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디디는 것에 언제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역의 시작도 그러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깊은 탄식을 쏟아 내게 됩니다. 그제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저희 가정에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만민의 복으로 이 일을 위해 먼저 가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가정의 용기있는 한 걸음은 학사 사역과 기독교 문화센터입니다. 킬링필드는 지금 모든 세대가 가진 기억이었습니다. 청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킬링필드로 인해 변화되었던 가정환경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킬링필드로 인해 타국과 다른 인구 분포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통계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있고, 이 세대는 일자리를 위해 프놈펜으로 몰려듭니다. 저희 가정은 프놈펜에 학업과 직장을 위해 이주해 온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들은 교회 개척의 마중물이 될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C국의 청년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특별한 문화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95%가 불교인 이 나라는 사실 종교 자유국이지만 이 자유라는 의미는 마치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이 정체성은 너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심입니다. C국의 청년들은 크리스찬에 아주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기독교 문화센터를 통해 이들의 관심이 부르심임을 알려 주고 문화가 아닌 복음을 알려주는 모임들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Ye's Kids (예서, 예나, 예현, 예은, 예흠 이야기)



<독립기념탑 앞에서 오남매>

저희 다섯 자녀 선교사들은 C국 현지인들에게도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제는 엄마 키를 넘어가는 첫째부터 조그마한 막내까지 다섯 아이가 함께 다니는 저희 가정을 보면 한국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던 어른들의 미소를 종종 이 곳 현지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다섯은 힘들텐데 어떻게 선교를 왔냐고 묻는 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이 상황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구해야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곧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구하게 만들어야 나를 찾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소소한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 하시기 원하십니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나 삶의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하시지만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어떤 아이에게 마음을 더 열어야 할지,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C국에 와서는 더욱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도 이렇게 만들어가시고 자녀 선교사들도 만들어 가십니다.

+차량구입의 필요



<툽툽이를 타고 이동 중인 예현, 예은, 예나>

C국의 주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에 4인가족이 모두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나 초등학생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은 일상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중교통은 바로 툽툽(TukTuk)입니다. 저희 가족은 보통 이 툽툽이 두 대로 이동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빠팀과 엄마팀으로 나눠 타고 따로 이동을 합니다. 요즘과 같은 건기에는 더운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만 지난 우기의 경우는 불편을 넘어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단 우기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꼭 나가야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멘소리를 하는 아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닦할 수 없는 비를 닦하기도 합니다. 벌써 없어진 한국에서의 우리차를 찾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툽툽이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차량구입은 선교사에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C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딱 이 때를 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타지역을 탐방하며 다니는 경우가 잦아지다보니 옆을 지나가는 모든 차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도 저런 차 한 대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23만키로를 운행하고 폐차했던 한국에서 타던 자동차보다 더 오래된 자동차가 2만불(이천팔백만원)이나 한다는 사실은 기도제목으로 내어 놓기도 힘든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 구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저희 가정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파송교회를 위한 기도



요즘 저희 부부는 성탄절에 헤브론병원에서 있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C국은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이 없는 C국에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4명의 연주자의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선교사는 혼자 연주하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모두 함께하려니 힘들다는 얘기를 연습 때마다 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저희 부부가 느낀 것이 있습

니다. 하나님도 혼자 선교 하시면 편하실 것을 우리같이 우매한 자들을 모두 모아서 함께 시키려니 얼마나 힘드실까? 이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를 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파송교회가 없는 저희 가정에 파송교회를 주시어 하나님의 사역의 구체화를 하는데 더욱 힘을 얻게 하옵소서.

†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C국을 위한 기도

1. C국의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 C국 기독교의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3. C국의 고통받는 소외계층, 여성,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4. 전도 금지 명령을 내린 빠일린 주가 복음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 상황이 악화되어 전역에 퍼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5. C국 다음 세대 제자들이 자국의 선교사, 아세안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Ye's Fam을 위한 기도

- 1, 저희 두 선교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자녀들이 일찍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2. 파송교회를 하루 속히 만나게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어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3. 언어학습을 하는데 더욱 지혜를 주시고 튜터 픽형제와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4. 허리 통증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주의 증을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5. 기독 학사와 기독 문화 센터의 예비된 장소와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주관 하여 주시옵소서.
6. 피지씨와 쓰라이 리어 자매, 우뎀형제 그리고 썩 말리나잇집사님과 영적 교제를 지속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7. 차량구입을 위한 재정의 채우심을 받게 하옵소서.
8. 자녀들이 장학 후원자들을 만나게 하시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9. 저희 가정이 어떤 이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저희 가정이 하나님에 살아 계시는 소망임을 증명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10. C국의 모든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롬 15: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후원문의

파송단체 : 바울선교회 063.254.8418
 이메일 : hsson77@naver.com
 카톡ID : hsson77 / GorgeousRiver
 연락처 : 855.96.741.2375 / 855.16.35.7755

손형식. 이가랴 선교사

예서, 예나, 예한, 예온, 예흠 자녀 선교사 드림